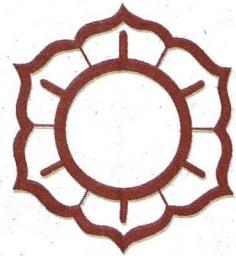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홍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2005년
6월 1일
수요일
제6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불사와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총지종 연회단이 이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바라불수록 기쁨에 차니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부처님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 비춰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별길을 편안하고 조용히 대답으셨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나투심을 기리기 위한 봉축행사가 지난 5월 15일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

원에서 예년과 비교하여 많은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다채롭게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불이법문을 되새겨 우리 모두가 마음속의 차별을 걷어내고,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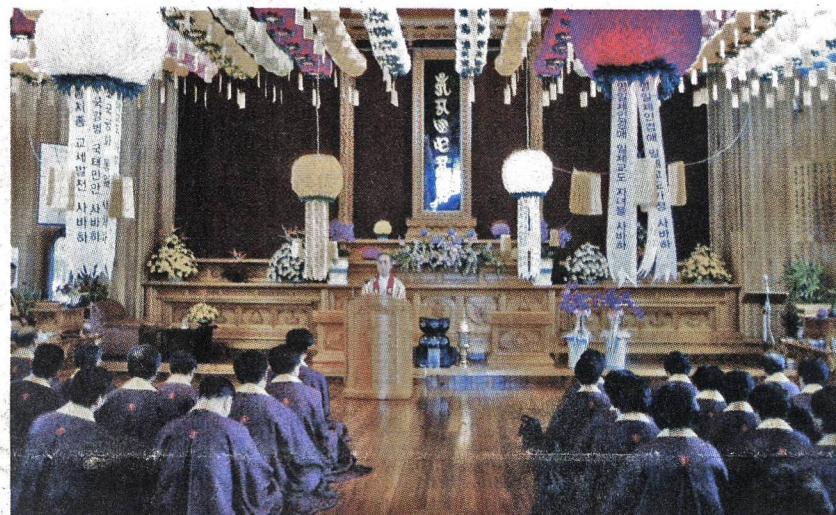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불이정신으로

서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말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마음마저 없애어 이 땅에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져 극락정토가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지난 5월 8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서울지역의 모든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봉

축법회를 봉행하였다.
연등축제에서 김병조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어울림마당에서는 각 시찰별 연회단의 장기자랑 공연과 각 그룹별 공연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하였고, 제2부 연등행진은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모든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각자의 소원을 발원지에 적어 기원하는 행사를 각 종단별로 준비한 장엄들과 연등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오색찬란하게

총지불교대학 개강 스승과 신도들의 교육제도 마련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총지불교대학개강식에서 효강 종령예께서 교상과 사상의 획립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정지선교부)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지난 5월 19일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 스승과 각 사원별 간부보살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지불교대학 개강식을 봉행하여 6월 1일부터 부산, 대구, 경남, 경북지역 스승은 부산 정각사에서, 서울, 경인, 충청, 전라지역 스승은 서울 총지사에서 1년에 6개월 씩 매주 목요일에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동안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친회하고, 남편과 자식,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웃는 마음과 실천을 행하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버리는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공법을 바로 세워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날 개강식에서 효강 종령예하는

“우리가 밀교의 진정한 수행자가 되려면 교상과 사상이 함께 갖춰져야 제대로 수행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상이라는 것은 삼밀관행 육바라밀 실천 서원정진 염송정진이고 교상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많이 공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기득 차 있어야 한다. 사상과 교상이 어느 한쪽만 기울어져도 새가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하듯이 우리 밀교에서는 교상과 사상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총지종은 시대의 엄청난 변화에 따라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종단이 되어야 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법력을 갖추고 교상과 사상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여기 계신 승직자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 사업에 몸을 밭치기로 맹세하

물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기득하고 온 세상이 평화와 행복이 가능하기를 발원하였다.

부산에서는 5월 5일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지역 불자들이 동참하여 연등축제를 열고 부산역에서 서면까지 거리행진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불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총지종은 서울에서 경인지역 스승들과 30여명의 연회단, 40여명의 풍물과 20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하여 준제자권인을 형상화한 장엄등을 필두로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업원을 혼상화한 팔업원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여 시민들의 감개를 받았으며, 부산에서는 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들의 풍물과 풍물로 하여 스승들과 300여 명의 교도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한마당을 연출함으로써 총지종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신분으로 밀교 법으로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구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고,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수행면에서 승직자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철주야로 용맹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최근 불교계에서 포교가 활성화되고 교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일부사찰의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신도와 승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은 올바른 교리공부와 수행실수를 통해 불교의 사상과 교상을 확립하고 확고한 신앙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종교관을 정립하게 되었고, 승직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을 통해 수행력을 고양시켜 신도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은 한 조직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단체의 성과를 기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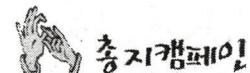
현재 불교계에서도 조계종을 비롯하여 타 종단들은 승직자에 대한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승직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총지불교대학 개강을 통해 앞으로 우리 종단도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죽비소리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나니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험서라
세간의 이치는 뜻없는 것이니
미혹하여 어둠속에 떨어지지 말라

이 달의 종조법 설

신심은 화회한에서 생침으로 소외보다 참여로 좌절보다 의욕으로 명령주의보다는 대화로 친위주의보다는 이해로 자비보다 이타로 미움보다 환희 심으로 이것이 생의 가치 기준이다. 참으로 즐거움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 중국적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할 경우 그 비용만 해도 최하 이천만원 이상이며 또한 장거리 비행은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까지 따른다. 그런데도 굳이 미국까지 가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구직 취득에 있어 우리나라의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屬人主義), 미국은 태어난 지역에 따르는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비록 그 부모는 한국인이라도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대부분은 태어난 지 한두 달 후면 미국 국적만 취득하고 바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남자인 경우 군에 갈 때 좀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국방의 의무는 면제되고 다시 35세가 지나서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또한 대학도 미국 국적을 이용하면 외국인 특례 입학에 의해 일반 학생들보다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최근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곧 시행된다고 한다. 시행되기 전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업무 출장소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자식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부여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심분 이해할 수 있다. 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나 제도는 이를 절대로 강제억압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복추구는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산다면 아무도 말할 사람은 없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그 덕분에 원정출산의 혜택을 받아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한국인으로 살면서 자국민으로 권리는 모두 누리고 의무는 이중국적을 앞세워 교묘히 피해가는 그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 대부분은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다. 만삭의 몸으로 히죽거리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국 산모의 사진이 실린 LA타임스지를 그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불공법

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이 5월 28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입재되었다.

하반기 49일 불공은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49일 동안 봉행되며, 특히 49일 불공 기간에는 조상들의 영식을 천도하는 천도불공을 통해 운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생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고, 자신의 안녕과 더불어 자녀들의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불공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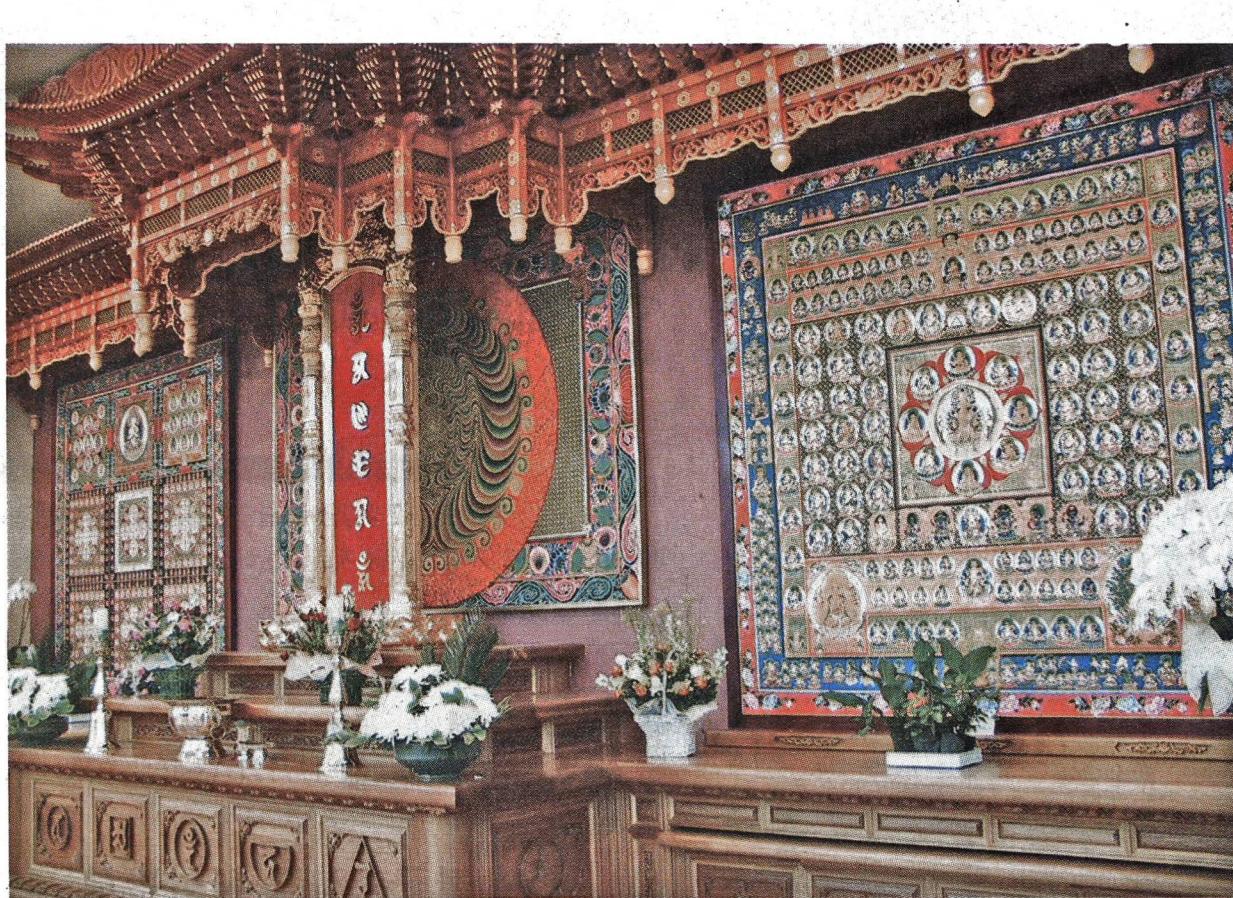
하반기 49일 불공에 즈음하여 우승 통리원장은 “불교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참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부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중생들에게 사로잡힌 번뇌와 집착, 망상, 아집을 제

거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고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마음 속에 편안함과 환희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동안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친회하고, 남편과 자식,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웃는 마음과 실천을 행하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버리는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공법을 바로 세워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날 개강식에서 효강 종령예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하반기 49일 불공

중생은 각자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헌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해탈을 이루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펴 모두가 부처가 되도록 하반기 49일 불동동안 용맹정진합시다.

◆ 일 시 : 총기 34년 5월 28일 ~ 총기 34년 7월 15일

◆ 장 소 : 총지종 전 시원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사설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에 즈음하여

▶ 총지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49일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호국가불공(鎮護國家佛供)을 올린다. 금년 하반기 49일 불공이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본 종단의 진호국가불공(鎮護國家佛供)의 1차적인 목적은 국가안위(國家安衛)와 나라발전을 기원하는 호국(護國)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불공은 부국강병(富國強兵)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로게 되도록 회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이러한 49일 불공의 2차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잘되기'를 서원하는 불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49일 불공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반기 49일 불공은 '자녀 잘되기를 서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 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라 할 수 있다.

49일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범신불(法身佛)의 당체설법(當體說法)이므로 공연 일으키는 법문(法門)으로 받아들여 더욱 엄송하고 회사법(喜捨法)을 세워서 49일을 잘 마쳐야 할 것이다. 49일 불공을 원만하게 마쳐야 회향공덕이 있게 된다.

이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적이며, 크며 매일 정송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엄송한다. 종조님께서는 수호국계주경법(守護國界主經法)을 근거로 하여 총기4년(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여 스승과 교도가 다함께 5월5일 월요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진하기로 결정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 이번 49일 불공기간은 종단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교회발전과 혁신의 일환으로 각종 제도에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심사숙고와 정진(精進)'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대립과 갈등, 반목과 불신이 있었다면 대승적 마음을 가지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고 자기주장이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대화와 논의로서 민주적이고 성숙된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금 종단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다양한 포교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승단과 종도들의 욕구 또한 예전과 많이 달리졌다. 뿐만 아니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줄기와 잎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다양한 수행방법과 각종 문화프로그램,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마련과 공간활용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構想)하면서 또한편으로는 현재 이순간 엄송정진에 마음을 놓지 않고 용맹정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수행체험의 콘텐츠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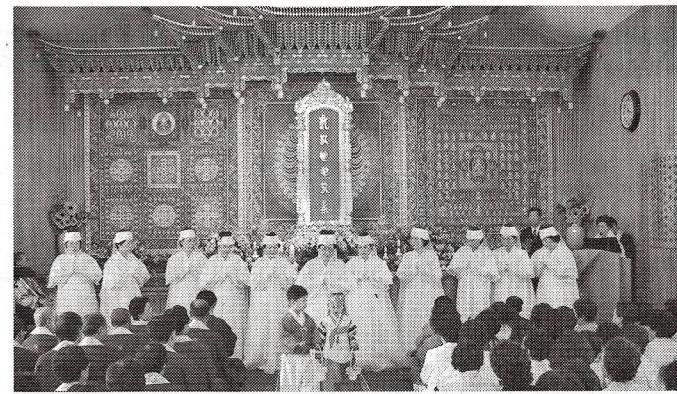
개인의 욕구나 취향은 더욱 다양해졌고 종교를 찾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종교적 욕구와 문화적 층족을 마련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실험적 교회방법을 시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일부 사원을 특화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교회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에게 신적되어 있는 과제들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풀이니기길 기대해본다. 교도들도 49일 불공 동안 서원하는 바를 속히 이루어는 조급함보다 느긋함으로 조금씩 일구어 나가는 불공이 되었으면 한다. 승단과 교도 모두가 환희심으로 49일 불공이 회향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마니보의 금강 법계궁으로”

법황사, 흥국사 현공불사 원만 회향



◆ 광주 법황사 현공불사에서 서울경인합창단이 부처님께 공양의 예를 올리는 유헌공양을 올리고 있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지난 5월 26일 효강 종례에, 우승 통리원장, 종단스승과 교도, 한동일 광주 남구청장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광주 법황사와 전주 흥국사의 현공불사(낙성법회)를 원만히 회향하였다.

이날 행사는 사부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본존재막과 서울경인합창단과 부산 정각사 합창단의 유헌공양, 비로자나 불전호흡, 유가삼발, 현공사, 인사말, 반야심경 독송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례에서는 현공사에서 "이 전당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유헌깊은 스승님과 교도님들의 무궁수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제하신 부처님의 범신불의 도량으로, 금강 법계궁의 도량으로, 모든 보살의 수행도량으로 일체유정의

복덕의 원천으로, 고해중생의 안식처로, 죄업중생의 해탈처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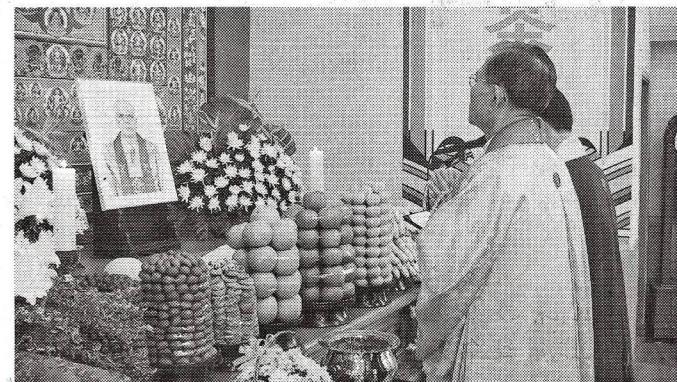
우승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은 남이 만들어 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간다. 지혜를 줄 모르는 마음, 증오와 시기,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세상은 평등한 부처님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황사 주교인 법수원전수와 흥국사 주교인 밀공정 전수는 "비바람을 벗삼아 초라한 공간에서 수십년동안 수행하다가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궁전에서 현공불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그동안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용맹정진하여 주신 보살님들에게 감사하며, 아름다운 부처님의 도량에서 밀법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은 종전의 사원건축양식을 탈피하여 전통 한옥식으로 사원건축양식의 변화를 시도한 광주 법황사와 전주 흥국사의 현공불사를 통해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경로위안찬치, 심신수련공간 등 지역문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포교의 일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록정대종사 열반2주기 추선불사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라”



◆ 효강 종례예하께서 록정대종사 열반2주기 추선불사에서 록정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선사를 봉독하고 있다.

총기32년 5월 4일 입적한 록정대종사 열반 2주기 추선불사가 서울 총지종사에서 효강 종례예하를 비롯하여 유가족,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추선불사는 현화 및 훈향정공, 추선사, 천수경독송, 삼밀관판, 반야심경순으로 거행되었다. 효강 종례예하는 '록정 대종사님께서 베풂어준 은혜를 보

답하기도 전에 열반하여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지난날들을 생각하며 그리움만 가득하오며, 평생동안 종단의 발전을 서원하셨던 대종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앞으로 종단의 발전을 위해 불굴의 의지를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였다.

록정대종사는 제2대, 4대, 7대 총지종 종령과 유지재단 이사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총지종의 정신적 베풀목으로 유지되었으며, 1972년 총지종 창종 구성원으로서 종조인 원정 대성사와 함께 총지종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의 불교와 불교의 생활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불공하는 총지종의 종자를 받아 교회를 활성화시켜 불교계의 주요종단으로 성장시켰으며, 평소에 '화평하고 화합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말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행하고, 항상 남의 허물을 보지말고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선행을 행하라.'라는 법어를 강조하였다.

알림방

- ① 하반기 49일불공이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사원에서 봉행됩니다.
- ②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됩니다.
- ③ 한·일불교교류대회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덕사에서 개최됩니다.

군인포교는 범불교적 차원에서 지원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군대 시절에 가졌던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생각 난다. 그 때

는 일병시절이라 군생활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로 오월의 새싹들이 푸릇푸릇 실록을 더해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은 더욱더 깊어만 가는 시기였다.

그 당시에 다행히 군부대내 귀퉁이에 조그만 절이 있어서 참 진리를 실천하는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평등의 종교로 착각할 정도이다.

그러나 불교는 범 대중적인 종교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인간의 본성을 깨쳐 부처가 되고 참 진리를 실천하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이념을 볼 때 남자들이 적은 것은 군인포교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남북이 분단된 한국에서 남자라면 모두가 군복무의 의무가 있다. 군복무는 하기 싫어도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절에 가게 되었다.

그날 주변의 어느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스님과 보살들이 방문하여 군인들을 위로하는 위문공연을 열고 있었다. 뛰고 과일을 군인들에게 제공하며 장기 자랑 등으로 펼쳐진 위문공연은 군인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밤에 펼쳐진 연등행진! 행사에 참가한 군인들은 연등을 들고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보살들과 어우러진 거리행진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으며, 그날 군인들은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감하는 조그마한 소원지를 연등에 달고 행진을 하였다.

그 그 행사는 군인이라는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가졌던 일기기에 아름답고 뜻 깊은 추억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군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행사는 그날이 마지막이었고 그 후에는 절에서 법회를 보는 일도 없어졌고, 절은 황폐한 폐허로 변해버려 귀신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다.

부처님 오신날만 되면 그 시절이 가장 먼저 떠올려 진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어야 음식의 고마움을 느끼고,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어야 고마움을 느끼듯이 군대시절 어렵고 힘들 때 가졌던 부처님 오신날 거리행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5년 4월 27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개천사	김옥희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벽룡사	오미순	3,000	자석사	우바이	80,000	정심사	오윤보	5,000	후원회 가입안내
개천사	무명씨	5,000	만보사	이설강	10,000	선립사	대 덕	10,000	자석사	조창환	2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개천사	이희권	2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총지사	김효숙	10,000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건화사	김경민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김점남	20,000	총지사	지심행	20,000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수인사	한애숙	4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혜정사	수중원	40,000	
관성사	혜 정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보사	안경숙	10,000	정각사	노점호	1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관성사	황성녀	30,000	밀인사	이현수	10,000	실지사	대 성	5,000	정각사	박말연	5,000	회음사	권정희	10,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지사	박병성	55,000	정각사	박훈희	1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신우필	10,000	회음사	최분순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정우석	10,000	정각사	윤선자	20,000	희국사	강한빛	10,000	
기로원	불멸심	10,000	밀행사	김대영	10,000	실지사	조원호	3,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희국사	무명씨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밀행사	무명씨	30,000	운천사	김대현	30,000	정각사	조현필	5,000	희국사	안화자	10,000	
단음사	이규성	3,000	백월사	박삼순	10,000	운천사	무명씨	30,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희국사	윤기순	10,000	
단향사	공철봉	6,000	백월사	유승태	5,000	운천사	박보경	2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희국사	이화수	5,000	
만보사	민순분	10,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운천사	배도련	10,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희국사	최순전	10,000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②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다라사자(多羅使者), 봉교사자(奉教使者)

지난 호에서 관음원의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과 수길상변관음보살(水吉祥變觀音菩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 번호에서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다라사자(多羅使者), 봉교사자(奉教使者)에 대해서 살펴본다.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백처존보살은 범어(梵語)로 「하얀 곳에 머무는 자(白處尊)」, 「백의(白衣)를 착용한 자(者)」라는 뜻이다. 그 때문에 백처존(白處尊) 또는 백의관음(白衣觀音)이라고도 한역(漢譯)된다.

『대일경(大日經)』에서는 다라보살(多羅菩薩)의 오른쪽에 배열(配列)하고 있다. 『대일경소(大日經疏)』에서는 '백(白)'이란 부처의 경계로부터 생기는 보리심(菩提心)을 가리킨다.

이 보리심(菩提心)이라는 백처(白處)에 머물면서 제불(諸佛)을 낳는 것이라면, 이 본존(本尊)은 관음(觀音)의 모친(母親), 연화부(蓮華部)의 주인(主人)이라고 설(說)한다. 이 본존(本尊)을 성숙(星宿)의 주인(主人)으로 하여 식재(息災) 등의 수법(修法)이 행하여진다.



백처존보살

다라사자

봉교사자

봉교사자(奉教使者)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리구금강(離垢金剛), 보화금강(普化金剛)이다. 때를 여의게 하는 보살이다. 삼매야형(三昧耶形)은 가부연화(開敷蓮華)이다.

존형(尊形)은 백황색(白色)으로 백의(白衣)를 착용하고 있다. 원손은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오른손은 여원(與願)을 맺고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다. 인상(印相)은 백처존인(白處尊)을 취하고 있다.

백처존인은 허심합장(虛心合掌)을 하여, 두 개의 무명지(無名指)를 손안으로 구부려 놓고 두 엄지를 나란히 구부려 무명지(無名指)에 대고 있는 결인이다. 진언(眞言)은 '나마 사만다보다남 다다카타비자야삼법빔베이 핫드마마리네이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歸依)합니다. 여래(如來)의 경계(境界)로부터 생긴 것이여! 적연화(赤蓮華)로 된 목걸이를 한 자여! 사바하'이다.

다라사자(多羅使者)

다라사자는 『제설불동기(諸說不同記)』나 『석산칠집(石山七

가)』로

자료정리 : 통리원 교정부

集)』에서는, 다라보살(多羅菩薩)의 왼쪽 뒤에 위치한다고 설(說)해지고 있지만, 현도만다라(現圖曼茶羅)에서는 오른쪽 앞에 그려져 있다.

이외에 『대일경(大日經)』, 『대일경소(大日經疏)』에는 설(說)해져 있지 않은 본존(本尊)이므로, 오른쪽·왼쪽 어느 쪽에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의궤(儀軌)에 근거(根據)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본존(本尊)의 범명(梵名)인 '다라·체티'는 '다라보살(多羅菩薩)의 하인(下人)'이라는 의미(意味)이다.

이 본존(本尊)의 진언(眞言)은 『대일경(大日經)』 보통진언장품(普通真言藏品)에 설(說)해지고 있는 「제봉교자(諸奉教者)」의 진언(眞言)이다. 그리고 이 진언(眞言)은 이하(以下) 연화부원(蓮華部院)의 모든 사자(使者)에게 공통(共通)되는 진언(眞言)이다.

삼매야형은 미부연화(未敷蓮華)이다.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양손에 미부연화(未敷蓮華)를 들고 연대(蓮臺)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眞言)은 '나마 사만다보다남 지 시리 카 보람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歸依)합니다. 지자(智者)여! 길상(吉祥)인 자(者)여! 함 브람 사바하!'이다.



법경정사
(사무국장 겸 연구원)

생활속의 밀교

무상(無常)의 진리

▶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무상(無常·덧없음, 영원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한 덧없음을 실제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자유롭게 되는 통찰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기에 고통스럽다고 말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라고 재촉한다. 그러한 무상함이 없이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집착을 없앨때 마음의

번뇌(탐욕, 화냄, 어리석음)들이 소멸

우리의 땀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세상의 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정의와 희망을 위하여도 무상함이 필요하다.

꽃이 시든다고 하여 내가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꽃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니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된다.

무상은 아주 좋은 정보이다. 무상함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무상함으로써 변화를 위한 모든 문들이 열려 있게 된다. 무상함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알아 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자주 우리를 귀찮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곧잘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아울러 자신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재빠르게 남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와벽히 객관적일 수 없는 자신의 의견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잊어 버리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의견들이 아집이라는 망상에 빠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만을 보여 줄 뿐이다. 그러나 그 마음도 영원하지는 않다. 자기가 좋으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함이라 말하기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다.

▶ 이러한 마음 구석에는 우리의 집착에 의한 것 이 대부분이다. 집착으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그것들을 그냥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집착하지 않음을 확실히 이해할 때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니게 된다면 여전히 그런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다. 집착을 없앨때 마음의 번뇌(탐욕, 화냄, 어리석음)들이 소멸 될 수 있다. 매 순간 집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무상함을 알고 극서에 순응하면 자연히 집착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진언염송을 통해 늘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자.

〈법경/ 사무국장/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옴남'을 정법계진언이라 한다. 정법계진언이란 현교의 정구업진언과 같은 의미와 성격의 진언이라 할 수 있다. 입으로 짓는 엄이 깨끗하도록 하는 진언이 정구업진언이듯이 정법계진언 또한 중생의 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삼립만상의 일체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러므로

정법계진언은 소우주인 나를 포함하여 일체 모든 법계를 다 청정하게 한다.

행자자신과 일체 삼단만상이 청정하여 실지염송삼매에 이를 수 있다. 정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실미묘한 진언염송은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진언행자는 종단의 법요의제인 '금강합장'에서부터 번뇌소진의 〈암〉자관을 거쳐 '옴남'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야말로 진언행자의 수승한 수행자세와 몸과 입과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진정한

정법계진언 〈옴남〉

염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암〉자가 일체번뇌를 없애는 진언종자이므로 '옴남'은 곧 일체번뇌의 소멸과 법계청정의 진언종자가 되는 것이기에 정법계진언인 것이다.

이 진언을 염송할 때는 원손은 '금강권'을 결하고, 오른손으로는 108염주로 '옴남'을 3遍이나 7遍 또는 21遍을 염송한다.

『현밀원통설불심요집』에 의하면 "이 정법계 '암'자를 만약 생각하거나 지송하면 능히 삼업을 모두 청정케하고 일체죄업의 장애를 다 소멸시키고 또한

능히 일체 모든 일을 성

취시킨다. 머무는 곳마다 모두 청정케 하고, 의복이 더러우면 의복을 청정하게 해준다. 만약 물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했다면 이는 진정한 청정이 아니다. 만약 이 법계심으로 '암'자를 염송하여 청정하게 했다면, 이를 필경청정이라 한다. 병안에 영단 한 알이 들어 있어 철을 금으로 만들과 같다. 이것은 진언의 한 글자가 더러운 악의 오염을 청정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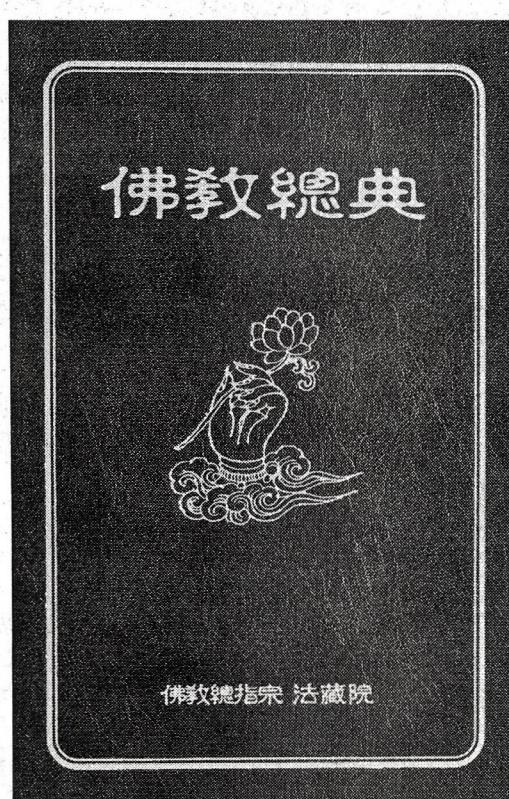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놓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애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법문

<기획연재>

보리심계문(菩提心戒文) <1>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꽂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증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대종조교계(大宗祖敎戒)

불과보리(佛果菩提)를 구하여 각(覺)의 피안(彼岸)이 이르고자하는 자(者)는 계율(戒律)을 엄수(嚴守)해야 한다.

우리 정통밀교 총지종에서는 양부대경(兩部大經)을 비롯하여 기타 성전(聖典) 중에 종종(種種)의 계율(戒律) 말씀을 설하고 있으나 이에 특히 모든 제자들에게 부속(附屬)하노니 무릇 출가수행과 중생제도는 원래 불과(佛果)를 얻기 위함이다.

발심(發心)하여 멀리 건너고자 하는 데 발이 없으면 능히 가지 못하며, 불도(佛道)를 얻고자하는 데는 계(戒)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불도를 깨칠 수 있겠는가.

재가 출가의 모든 대중은 일체 계율을 견고히 수지하고 청정히 하여서 범(犯)하지 말아야 한다.

2. 보리심계문(菩提心戒文)

대저(大抵)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을 발(發)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심심(深心)으로 관찰해야 한다. 시방제불

의 청정성해(淸淨性海)는 담적원명(湛寂圓明)하여 본래부터 생멸(生滅)이 없고 광대무애(廣大無碍) 하여서 무상무위(無上無爲)로 항상 적멸(寂滅)한 상(相)이다.

모든 중생이 모든 망상번뇌(妄想煩惱) 때문에 청정한 마음이 미혹되어 깨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흐흔(昏昏) 묵묵하여 탐진(貪嗔癡)의 독(毒)에 낫과 밤으로 타고 빠지며, 육적(六賊)에 쫓기고 오욕(五慾)에 얹매여 혼광(昏狂)함이 이미 치성(鐵盛)하여 각지(覺知)할 바를 알지 못함을 애민(哀愍)하여 대비(大悲)로부터 화신(化身)을 유연(流演)하여 불생(不生)으로부터 생(生)하시고 무상(無相)으로서 상(相)을 나타내어 가작(假作)으로 언설(言說)을 일으켜 거래(去來)를 시현(示現)하였으며, 우리들 중생을 연념(憐念)하여 방편지(方便智)를 일으켜서 권리(權實)의 교(敎)를 베푸시고 이둔(利鉢)의 근성(根性)을 인도(引導)하기 위하여 종종 돈진(種種頓漸)의 법문을 시설(施設)하니 우리들이 참과(慚愧)하고 제불(諸佛)의 자비방편(慈悲方便)으로서 중생이 고해(苦海)에 침윤(沈淪)함을 민념(愍念)함과 같이 마땅히 광대한 마음을 발기(發起)합니다.

서원(誓願)하니 일체중악(一切中惡)을 단제(斷除)하겠사오며, 서원하니 최상의 법문을 수습하겠사오며, 서원하니 모든 중생계를 도달(度脫)하겠사오며, 일체유정(一切有情)으로 하여금 맹세코 속히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제불(諸佛)의 승과(勝果)를 즐득(證得)하고자 보리심(菩提心)을 발기(發起)합니다.

보리심(菩提心)은 곧 제불(諸佛)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이고, 또한 중생의 염정심(染淨心)이라. 그 근본을 찾고 근원



보리심은 제불의 청정법신, 중생의 청정심

참회하면 모든 죄가 소멸할 지니라 ...

을 죄으면 본래부터 생멸이 없고 시방(十方)에 이를 구하여도 불가득(不可得)이라.

언설(言說)의 상(相)을 여의었으며, 명자(名字)의 상(相)을 여의고, 심연(心緣)의 상(相)을 여임이라. 망심(妄心)이 유전(流轉)함을 곧 중생염오(衆生染汙)의 몸이라 하고, 개발조오(開發照悟)함이 곧 제불(諸佛)의 청정법신(淸淨法

身)이라.

부증불경(不增不減經)에 이르되 중생계를 떠나서 법신이 없고, 법신을 떠나서 중생계가 없나니 중생계가 곧 법신이요, 법신이 곧 중생계라 하였다.

또한 중생계가 청정함은 마땅히 알지니 곧 법신(法身)이요, 법신이 곧 열반(涅槃)이며, 열반이 곧 여래(如來)라 하였으니 이는 일체중생의 청정법신(性淨

들을 민념(愍念)하니 우리의 법신과 평등무이(平等無二)함이라 어찌하여 신임(信任)하고 구원(救援)하지 아니 하리요. 용맹(勇猛)하게 대비(大悲)를 발기(發起)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마(魔)의 원적(怨敵)을 부술지니 이런 고로 보리심을 발기(發起)하나이다.

3. 계청제불(啓請諸佛) - 수

계자 대표, 수계자

제자(弟子) 000은 시방제불과 비로자나(釋迦牟尼)와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만덕원만(萬德圓滿)하신 일체여래와 모든 보살 마하살 중에 계수귀명(稽首歸命)하나이다.

도량에 강림하시어 대자비(大慈大悲)로써 우리들을 발제(拔濟)하시고 대지혜(大智慧)로써 우리들을 조명하시옵소서.

이제 대보리심(大菩提心)을 발기(發起)하여 생사(生死)를 기사(棄捨)하고 마중(魔衆)을 파괴(破壞)하며 외도(外道)를 죄복(崔伏)하고 이승(二乘)을 초월하여 맹세코 제불(諸佛)의 대비행원(大悲行願)을 구하고자 하나이다.

이에 저희들이 귀명(歸命)정예(頂禮)하나이다.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매훔, 귀명동방 이죽불, 귀명남방 보상불, 귀명서방 아미타불, 귀명북방 불공성취불, 귀명청정법신 비로자나불.

4. 보(普)공양(供養) - 수계자

제자(弟子) 000은 원하오니 청정수승(淸淨殊勝)한 향화(香花), 당번(幢幡), 보개(寶蓋), 음식(飲食) 등축(燈燭)으로써 항상 원하오니 일체제불 및 모든 보살(菩薩), 일체(一切) 현성(賢聖)을 공양하나이다. 우리들의 공덕력(功德力)과 여래(如來)의 가지력(加持力)과 법계력(法界力)으로써 널리 공양(供養)하나이다.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매훔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쇼핑 중독

세상이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회한한 병도 많아진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소한 병명이 의사사전에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쇼핑중독이다. 백화점에 온갖 물건들이 전시되어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신용카드와 같은 편리한 지불 수단이 생기면서 등장한 신종 문화병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텔레비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

까지 가세하면서 쇼핑중독자들이 늘고 있다.

쇼핑중독자들은 필요하지도 않는 상품을 미구입으로 구입하고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뭔지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벽장 속에는 뜯지도 않은 상품이 늘어가지만 상점 앞의 물건 앞에만 서면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다. 쇼핑이 불가능해지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유증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쇼핑중독 환자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다른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외로움과, 무료함, 만성적인 공허감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좌절감, 이것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현실도피적 행동인 것이다.

일단 쇼핑중독현상이 나타나면 무책임한 행동으로 몰아 비난하거나 무조건 못하게 하는 등의 태도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다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우울, 불안감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가족들이 함께 치료에 참여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와 함께 행동조절을 위한 적절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환자 물건을 사려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리 구매할 목록을 만들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하고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구매 충동을 느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목록을 만들어놓는 것도 좋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증후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이나.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자지의 마비나 감각 상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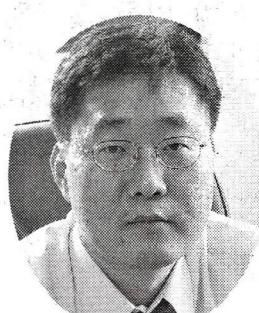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혼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홍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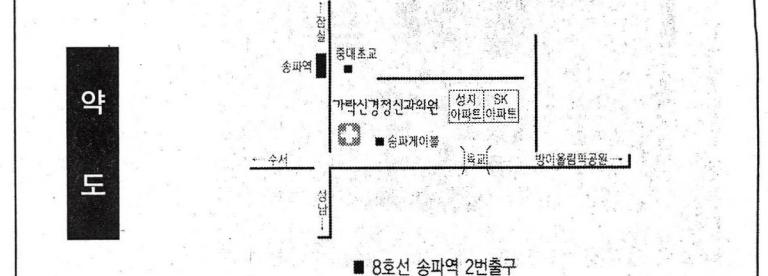
정신과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기위원회 위원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풍경소리

마음속의 대왕

조주화상이 어느 날 거실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 때, 화상의 한 시자가『스님! 대왕께서 오셨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왕인자라, 시자는 즉시 그 내방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시자의 전갈을 들은 조주화상은『대왕 만복』

큰 소리로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아닙니다. 스님! 대왕께서는 지금 저기 올라오시는 중이시고 아직 이곳에 당도하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조주화상은

『모르는 소리로다. 지금 또 한 분의 대왕이 오시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할 때마다』하였다.

시자는 오직 형식상의 대왕만 대접할 줄 알았지, 늘 존경하여 모시는 마음 속의 대왕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공경의 마음과 친절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모시는 마음 속에 늘 변함없이 담겨있는 것이다.

깨달아 소(牛)가 되라

어떤 중이 설봉화상을 만나서 물었다

『저기 있는 저 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일흔일곱입니다.』

설봉화상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설봉화상 자신의 나이였다. 이에 그 종은 재치 있게 거듭 물었다.

『노스님은 어이하여 소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된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이야-

기인가? 나는 무엇이 되든 중생을 위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다 되겠다라고 설봉화상이 대답하였다. 사람이 정상에 올랐거나 남들보다 두드러진 무엇을 갖추었다고 하여 안락만을 구하고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 애써 쌓은 공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깨달음을 얻은 연후에 권리를 내세워 남으로부터 존경을 스스로 원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자와 같다.

기빈사리조

기빈사리조(평과 비슷한 자고새의 일종)라는 새에게 두 친한 벗이 있었는데, 하나는 코끼리였고 또 하나는 원숭이였다.

『우리들 중 누구의 나이가 위인지 모르겠다.』

코끼리가 말했다.

『나는 옛날 이 나무가 내 눈 밑에 있는 것을 보았소. 지금 이 나무는 이렇게 높이 자랐소. 이것으로 추측할 때 내가 바로 위임이 틀림없소.』

원숭이는 말했다.

『나는 전에 땅에 엎드려 내 손으로 이 나무의 꼭대기를 잡아당겼소. 이를 추측컨대 내 나이가 더 위일 것이오』 이번에는 새가 말하였다.

『나는 필발라나무 숲속에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소. 그때 그 씨가 내 통과 함께 떨어져서 이 나무가 낳소. 이것으로 생각컨대 내가 더 연장일 것이오. 이찌되었건 연장자는 연하지를 보살피고 연하지는 연장을 공경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읊지 않으면 그만이오.』

즉시 코끼리는 등에 원숭이를 태우고, 새는 그 원숭이 위에 앉아 춤을 추며 즐겁게 거닐었다

이달의 명상

더불어 하나인 세상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나와 남을 나누게 되고,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게 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남들 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조그만 이권을 갖고도 서로 으르렁거리는가 하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분분투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질시하거나, 중상모략, 인신공격 따위의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다른 생명, 존재의 가치는 부정되어도 좋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꾸만 '나'라는 것을 고집하게 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보십시오. 서로 굽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른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이

움이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연꽃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연꽃 특유의 성질과 향기, 의미하는 바가 다른 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 꽃이 연꽃밖에 없다면 결코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 많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이만만 지았고, 앞으로도 많은 존재들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무지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 없는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불안정 속을 헤맬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잘못된 벽을 허물고 더불어 하나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곁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뎌 보시고, 굳게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조용히 내밀면 경계심으로 떠듬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모두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적을 만들지 않으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스스로도 귀해지고, 다른이 없는 더불어 하나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밀교

~반야심경편 제 41화~

글.그림/정수일

아직 팔정도중
정어(正語),
정정진(正精進),
정정(正定).
세 가지가 설명이
되질 않았군요.

정어란 글자그대로
정견과 정사유에 의해
지켜지는 "바른말"이며
거짓말이나 삿된말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속의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몽골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4세기경 중국의 스님들이 변방에서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중국의 자료에서 보여지고 있다.

불교는 중국의 조각품과 함께 사원에서 발견된 종에 나타난 증거로 볼 때 7세기경에는 예니세이 지역까지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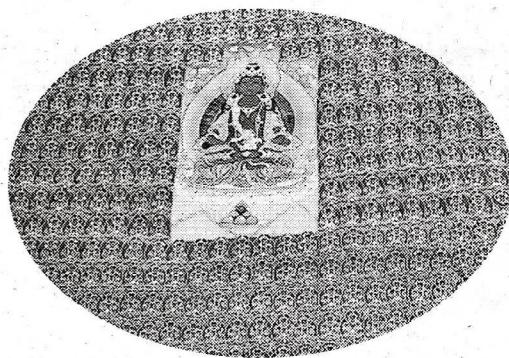
몽골에서 불교전파의 다른 요인은 실크로드를 따라 우이그르 오아시스에 불교공동체가 형성되



고 성장되었던 점으로 볼 때 실크로드를 왕래한 스님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카라코룸시대에 오게데이 칸에 의해 건설된 몽골의 수도는 불교사원의 양식을 기초로 하여 건축되고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원에 그려진 벽화의 일부만 존재하고 있을 뿐 초기시대에 불교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

몽골인들에게 초기에 불교의 전파에 대한 근거로 수의가 존재하는데, 수의는 카후라비라이 칸 왕국시대동안 탄트라불교의 신통력을 증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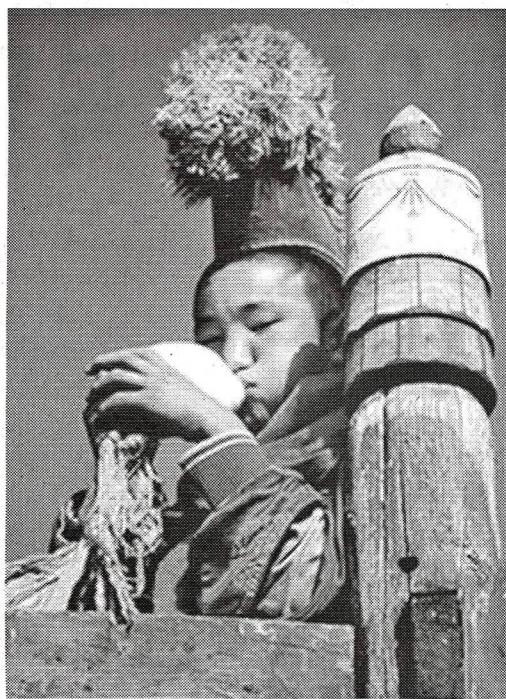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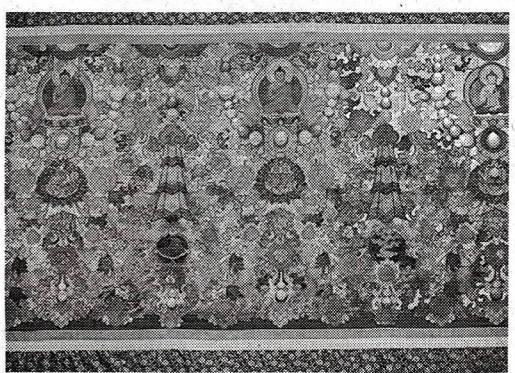
신비스런 행사의 덮개로 사용되었다.

오게데이 왕국시대에 몽골인들이 티벳을 정벌하고 티벳승려를 감옥에 인질로 체류시키는 가운데 불교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라마불교는 큰 영향력을 미쳤다.

라마불교의 활동은 몽골인들에게 불교의 개종을 촉진시켰고, 1269년에 발견 인쇄기술로 많은 불교문학이 몽골어로 번역되었다.

광범위한 불교문학의 번역과 인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개종은 귀족과 왕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몽골의 종교사로 비추어볼 때 불교가 전 지역의 일반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시대에는 유명한 신들을 불교의 신으로 변형시켰으며, 다른 종교로부터 관



념의 수용을 가져오게 하였다.

1368년 후반기에 몽골인이 중국을 통치한 후 몽골인들에게 불교의 세력은 약화되었으며 불교는 미신적인 형태로 퇴폐되었고, 고유한 전통종교와 사마니즘에 융합되었다.

16세기가 되어서 투메트의 알란 칸이 티벳의 동쪽 변방을 무력침략 후 라마불교의 승려와 접촉한 후 불교로의 개종이 이루어졌다.

50년의 짧은 기간에 달라이라마 3세의 방문을 시작으로 불교가 발전하여 1578년 쾌고 고타시대에는 라마 승직자들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모든 귀족들이 불교로 개종하였다.

군주와 왕자들은 돈과 가축과 말을 기부하는 정도에 따라 신앙심의 성실성을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라마불교를 신앙하도록 강요하여, 사마니즘

과 우상은 추방되었으며, 사라지게 하였다. 그 시기에 많은 사원이 설립되어 사람들은 스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사원은 몽골에서 인재의 양성소가 되었다.

또한 사원은 유럽의 중세제도 장원형태와 비슷하게 운영되었으며, 그들은 특별히 불교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과학의 요람이 되었다. 1629년

교와 반종교의 사상과 윤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강희 황제의 후원으로 몽골의 브코주라 개정판이 출판되었고, 탄주르의 번역이 시작되고, 완료되었다. 브코주라와 탄주르의 경전은 황제의 선물로 사원에 전달되었다.

18세기에는 전통적인 몽골의 신학이 국가적인 문학으로 재구성되었다. 백년 후에는 몽골에



에는 많은 라마불교의 작품들과 1,161권의 라마경전 칸주가 몽골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에서 청왕조시기에 몽고귀족과 만주황제에 의해 불교작품들이 몽골어 번역되었다. 특히 불교전을 출판하는 일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다. 의학, 철학과 역사에 대한 작품들이 출판되었다. 몽골의 영적인 신앙은 종



1,200개의 라마사원과 수도원이 있었으며, 현재는 700이상의 사원이 존재하고 있다.

몽골남지의 3분의 1은 성직자이다. 자급자족적인 사원은 정치에 분리된 자체적인 행정과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사원과 라마불교의 쇠퇴가 내적인 분쟁과 도덕적인 풍토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적인 운동과 새로운 사상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근에 일부의 사원은 중국의 몽골지역과 몽골 공화국, 구 소련지역인 브라아트 몽골지역에 다시 세워졌다. 그러나 짧은 충돌이 다시 불교를 신앙하고 다시 사원을 개원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mongolia-txt.htm> 번역 : 김옹주/총지종보사)

정보 다이제스트

경북종교인구 “10명중 6~7명이 불교”

경상북도 지역 종교인구의 10명 중 7명은 불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도군의 불교인구는 89.9%로 가장 높았고, 울릉도는 32.7%로 가장 낮았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22일 ‘2004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4년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23개 시군에 거주하는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다고 답한 50.1%의 응답자 중 불교라고 답한 사람은 67.4%였고, 개신교(19.4%), 천주교(9.5%)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불교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운문사가 있는 청도군으로 89.9%였고, 영양(84.4%)과 은혜사가 있는 영천시(81.1%)가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32.7%가 불교를 믿고 있다고 답한 울릉군이 가장 낮았으며, 봉화군(55.5%)과 의성군(56.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성과 김천시(57.1%)가 상대적으로 불교인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60~64세까지 종교인구 중 불교인구는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불교인구가 타종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활동에서는 불교인구의 67.8%가 연 1~2회 참여한다고 답해, 84.4%가 주 1회 이상 참여한다는 개신교 신도보다 월등히 낮았다.

재가연대 “수행과 교육에도 관심가져야”

“종교자유, 사찰경영, 국제교류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신도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참여불교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3월 26일

창립 6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연찬회에서 회원들은 ‘수행과 교육’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찬회에서 성기서 국제협력위원장은 “올바른 수행문화가 형성될 때 다른 분야의 일들도 잘 할 수 있다”며 수행풍토 조성을 강조했다.

박광서 상임대표는 “앞으로 실무자들을 보강하면서 수행과 교육부분에도 역량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가연대회원들은 이외에도 청년불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청년불자양성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불교계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재교육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 88% “우울증 심각하게 느꼈다”

영화배우 이은주에 이어 과학과 총학생회장이 자살하는 등 최근 신변비판 및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네티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포털 사이트 ‘제시인러브’가 네티즌 3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부터 ‘내게도 우울증세가’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우울증이 ‘심각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심각함을 느낀 적이 없다’는 대답은 11%에 그쳤다. 우울증세로 겪은 가장 극단적인 경험은 ‘무기력증을 경험했다’가 63%로 가장 높았고 대인기피 현상을 보였다’는 대답이 22%로 뒤를 이었다. ‘자살을 시도했다’와 ‘자해를 시도했다’는 각각 5%를 기록했다.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평균 주기는 ‘1~2주 일에 한 번씩’이 31%로 가장 많았고 ‘1~2개월에 한 번씩’이란 대답이 24%로 조사됐지만 거의 매일 나타난다(22%)란 비율도 높아 우울증의 심각함을 반증했다. 우울증세의 원인으로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44%)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환경의 변화’(실업, 실연, 경제적 어려움)가 36%였으나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15%)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증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52%)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우울증세가 있더라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세가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는 ‘주위사람들의 관심’(39%), ‘운동, 취미, 식이요법 등’(25%), ‘편안한 휴식’(19%), ‘전문가 심층상담’(14%) 순으로 조사됐다.

채소·과일 췌장암 위험 감소시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기로 유명한 췌장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파비스 가디리안 박사는 ‘국제 암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췌장암 환자 585명과 건강한 성인 4,779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식사습관과 생활습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적은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약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게만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채소, 과일과 췌장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이 없었다고 가디리안 박사는 말했다. 특히 토마토에 많이 들어 있는 리코펜이 췌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재식 그룹이 자주 먹은 것은 사과, 오렌지, 캔터루프,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으로 이런 과일과 채소에는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 카르테이노이드와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다. 이러한 환산화물질은 대사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장기간에 걸쳐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디리안 박사는 췌장암은 대부분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5%도 안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5년뒤엔 ‘인력대란’ 온다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부족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중장기(2005~2020년)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해 오는 2010년부터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00년대에 1.39%로 낮았지만, 2010년대에 0.81%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00년대에는 15~34세의 경제활동인구가, 2010년대에는 15~44세의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고연령으로 갈수록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은 2005~2010년에는 연평균 1.88%(연간 441,000명)로 증가하다가 2010~2020년에는 연평균 1.26%(연간 335,000명)로 하락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2005~2020년의 연평균 임대성장률(4.5%) 전망치를 감안할 경우 노동수요는 2005~2010년 연평균 1.51%(연간 379,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노동연구원 인주엽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노동력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15년에는 586,000명, 2020년에는 1,234,000명의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예상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기 쉬운 구조로 인력시장을 전환하고, 고연령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1995년 정점(76.4%)에 도달한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회복되기 힘들지만 여성의 참여율은 2003년 48.9%에서 2010년 50.9%, 2020년 52.3%로 상승할 전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사병행 여성과 고연령자 흡수 가능한 파트타임 근로 활성화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인력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국가인프라 및 사회체계정비 ▲노동이동이 가능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또한 2020년까지는 전문가, 기술공 등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증할 것 보이지만 사무직 종사자는 정체되고 판매직과 농어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속화 . 고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직종 양극화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인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루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제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침사림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정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 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기획 특집 법황사, 흥국사 현공불사 이모저모

호남지역 밀법요람, 일체유정의 복덕과 죄업중생의 해탈처



법황사 사원연혁

광주 법황사는 총기 12(1983)년 광주시 금동 186-1 번지의 독립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설단 불사를 거행하고 원덕서원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짐, 그 후로 총기 13(1984)년 광주시 서구 구동의 단층건물을 매입하여 법황사로 개칭하고, 초대 주교로는 현재 법황사 주교이신 법수원 전수님께서 임명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 법황사에서 법을 설하고 계심. 법황사 신축 건물은 총기 30(2001)년 12월 24일(창교절)에 공사 착공하여 총기 32(2003)년 1월 16일 준공한 지상2층 지하 1층, 연면적 484평의 건축로, 종단에서 최초로 한식기와 양식으로 신축하였다.



흥국사 사원연혁

흥국사는 총기 2(1973)년 전주시내의 한복집을 임대하여 선교부로 개설하고, 총기 4(1975)년 훈정서원당으로 세워짐. 총기 9(1980)년 전북 전주시 고시동의 1층건물을 한동을 매입하여 흥국사라 개칭하였음. 신축건물은 총기 31(2002)년 원산군 효자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2월 1일 착공하고, 총기 32(2003)년 6월 18일 원공하였으며 전통 한옥식으로 연면적 320평의 지상 2층 건축물로 신축하였다.

종령 헌공사



불심 가득한 도시 광주와 전주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엄한 법계 도량을 부처님 전에 현공드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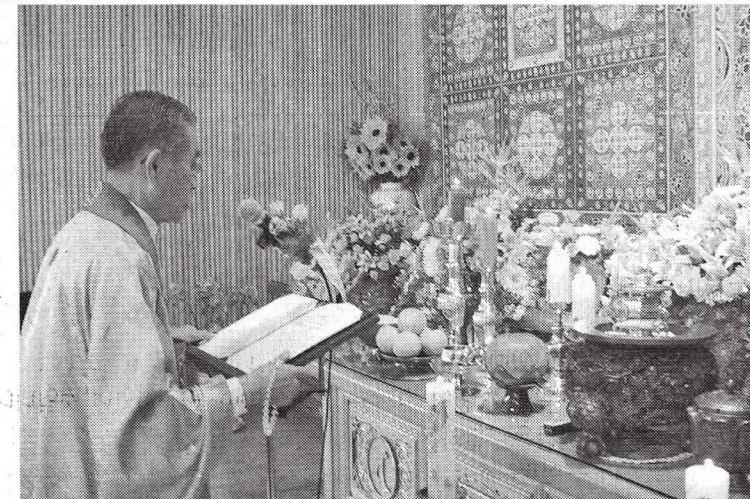
이 전당(殿堂)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원력깊은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무진서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당은 자재원만하신 법신
효강 종령
불의 도량으로, 금강법계궁의 도량으로,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전당으로, 그리고, 일체 유정들의 복덕의 원천(源泉)으로. 또한, 고해중생들의 안식처로, 죄업중생의 수도 해탈처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에 상주하여 영원불변하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어!

오늘,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다 함께 불사를 올리고 서원하오니, 이 법황사와 흥국사가 미래제가 다 하도록 불법의 인연처가 되어 하옵고, 우비고뇌(憂悲苦惱)의 수령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는 무진등(無盡燈)이 되고, 서원성취의 마니보궁(摩尼寶宮)이 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되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원하오며, 간소한 헌공사로서 불전에 현공하오니 영겁토록 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자비지혜가 함께 하옵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효강 종령 헌공사 봉독



정각사 만다리합창단의 육법공양



헌공불사 본존제막



법신불의 밀법으로 중생구제와 교화활성화 발원

통리언장 인사말



법황사

계절의 여왕 오월의 실록은 푸르름을 더하고, 응장하고 아름다운 무등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거룩한 정기가 어

느새 아름다운 진연행자들이 수행하는 정통밀교 밀법도량 법황사까지 당도하여 오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종명하는 가운데 거룩한

한옥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법황사도 예전에 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초라하고 보잘것 없던 곳일지도라도 수행하시는 스승님과 보살님들의 마음은 크고 동글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처님 도량이 있기까지 고생하셨던 법황사 주교이신 법수원 전수님과 법황사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 국토건설 신재홍 이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구경에 보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속에서도 증오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속에서도 질병 앓지 않고 병자를 속에서도 병듦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폐락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폐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폐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은 남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물질적, 육체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속할 줄 모르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미움의 감정, 증오와 시기, 질투의 마음자리가 자리잡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법황사도 예전에 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곳일지도라도 수행하시는 스승님과 보살님들의 마음은 크고 동글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처님 도량이 있기까지 고생하셨던 법황사 주교이신 법수원 전수님과 법황사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 국토건설 신재홍 이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공불사를 마련하여 주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법황사 법수원 전수님과 법황사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리까지 참석하여 주신 종단 스승님과 보살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의 가지력이 충만하여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의 나날이 영속되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흥국사

산들 산들 불어오는 실바람에 플라타너스의 줄기들이 흥겨운 춤의 향연을 펼치고, 처마 끝에 매달린 조그만 종소리가 무릇 무명(無明)속에 사로잡힌 중생들의 번뇌와 악업의 끈을 끊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흥국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게 되어 기쁨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흥국사는 초라한 도량이었습니다. 비록 허스름한 도량일지라도 밀공정 주교님, 흥국사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은 진언행자로서 밀법을 포교하기 위해 용맹정진하셨습니다. 이러한 용맹정진이 있었기에 고통받은 대중들을 불법으로 호령하듯 높은 곳에서 응장한 자래로 자리잡은 광명의 빛이 가득한 부처님 도량을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흥국사는 법황사와 더불어 호남지역에 밀법을 포교하여 이 지역에서 밀법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잡아함을 보면 “물질은 무상한가, 아닌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아닌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없습니다’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

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집착에 의해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별심으로 인해 서로간에 불화와 불평,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모든 세상은 평등한 부처님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임을 알고 부처님을 모시듯 남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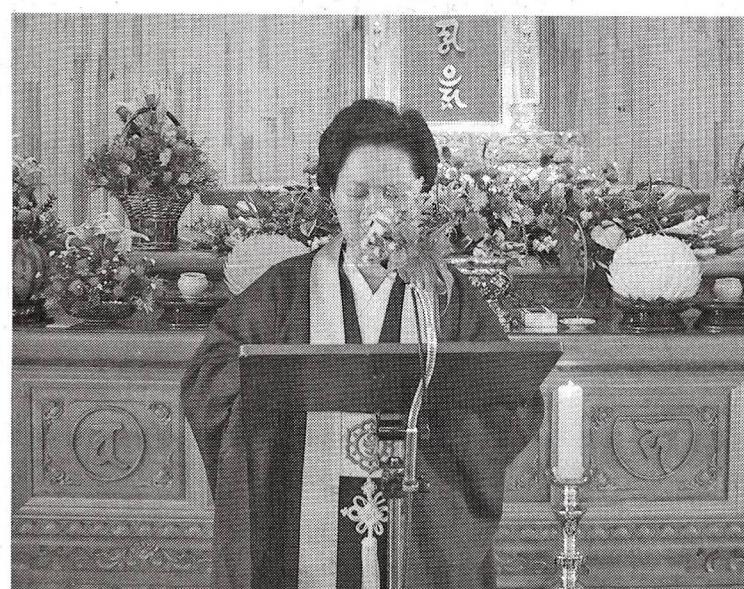
오늘 이 헌공불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해탈하셨기에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해탈을 이루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공불사를 원만히 회향되도록 고생하신 흥국사 밀공정 주교님과 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법황사 헌공불사에 이어 이곳 흥국사 헌공불사까지 참석하여 주신 종단 스승님과 보살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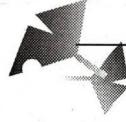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통하신 가지력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해탈을 이루시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법황사 법수원 주교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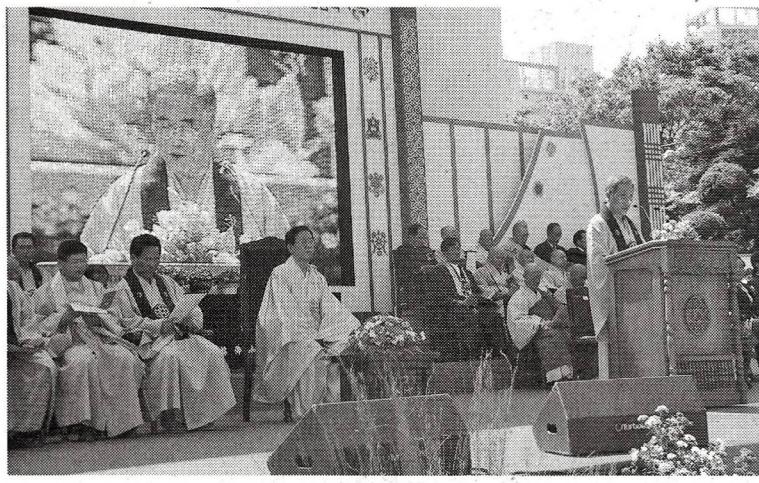
흥국사 밀공정주교 인사말



교계소식

인재양성, 신도교육, 문화복지구현

진각종 제27대 회정통리원장 취임식



진각종 제 27대 회정 통리원장 취임법회가 5월 20일 총인원 애의 특설무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하여 불교계 대표단과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 한나리당 강재섭 원내대표,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 등 2000여명의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회정 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상생을 종단운영의 기조하에 참의적 사고와 추진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행정기관의 자율적 기획과 추진을 독려함과 더불어 포교, 교육, 복지의 3대 종책에서 문화의 영역을 포함한 4대 종책사업으로 선언하고, 신도교육을 통한 교화조직의 보조적 기반형성, 교법의 교학적 체계를 완성하여 세계와 한국 밀교를 연결하는 교류지도, 스스로 실천하는 능동적인 종무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법현스님, 열린선원 개원

주말법회, 참선 및 개방형 운영, 불교아카데미



한국불교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열린선원’의 개원법회가 6월 5일 오후 2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태고종 총무원 인근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열린선원은 인터넷 카페 ‘열린질’ (<http://cafe.daum.net/buruna21>)을 모체로 삼고 있다. 사찰이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것 모두 흔치 않은 일이다.

열린선원이 일반 사찰과 차이점은 음력 위주의 재일(齋日) 법회를 하지 않고 토, 일요일에만 법회는 연다는 것이다. 주5일제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다. 또 참선지도를 포교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공동운영 도량으로 운영되며, 교양대학과정인 ‘열린불교 아카데미’를 개설, 불자기초과정을 지도한다.

스님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법문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회, 학생회, 대학생회, 청년회 등 각급 법회를 개설하겠다고 밝히고 나아가 각계 전문가 그룹을 연구원으로 초빙, ‘21세기 선교방편(善巧方便) 연구소’를 개설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토회 에코붓다, ‘2005빈그릇운동 선포식’

“100만명 참여로 생명운동 전환점 마련”

지난해 24만명의 참여를 이끌어낸 정토회의 ‘빈그릇운동’이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다시 시작된다.

정토회 에코붓다(이사장 법륜)는 5월 20일 서울 명동에서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약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에코붓다 이사장 법륜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 곽경호 환경부 장관, 방송인 김미화·배종옥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빈그릇운동이 전국민의 생활문화운동

으로 번져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되도록 하자”고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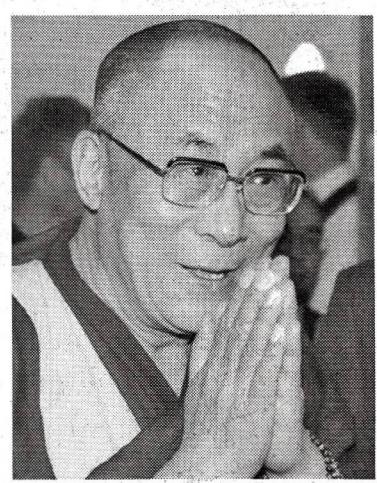
특히 이번 운동에는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어서 범종교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륜 스님은 “향후 빈그릇운동이 환경운동과 기아문제해결을 위한 지구촌 생명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에코붓다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빈그릇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만해대상 평화부문수상에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방한 관심



계의 관심을 환기시킨 공로로 노벨 문화상을 수상했다.

1942년 출생해 가톨릭대학과 로마 올바노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이탈리아 그레고리와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운동 신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산파역을 맡으면서 인권회복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은사로 두둔한 지관 스님은 11대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최치원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고금의 금석문을 발굴 수집 정리, 연구해 한국금석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은 8월 12일 오전 11시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만해대상 수상을 계기로 그의 방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삼사위원 가운데 한 명인 김재홍 만해학술원 원장은 “달라이라마가 수상을 받아들였으며, 수상 승낙서도 보내왔지만 달라이라마가 시상식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수상 승낙서에서 “저는 한국인들도 티베트인들처럼 큰 사회적 변동을 경험했고, 성공적으로 시대에 적응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저를 만해평화상 수상자로 한국에 초청해준 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티베트 문제에 대해 비폭력의 정책을 견지해온 저의 노력을 인정해 준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조계종 법장 총무원장)가 제정하고 백담사 만해마을이 주관하는 제9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티베트 망명 정부 수반이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9회 만

해대상 평화부문에 달라이라마를, 문학 부문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인인 소임카(전 노벨상 수상자) 씨를, 실천 부문에 천주교정의 구현사제단 학생운동 신부를, 학술부문에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평화 부문 수상자인 달라이라마는 국제사회의 갈등, 인권문제, 국제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선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공적으로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34년 나이지리아 출신인 소임카는 ‘감옥으로부터의 시’ 등 다수의 시집과 ‘훈들의 계절’ 등 희곡집을 냈고, 1986년 ‘높지대의 사랑’으로 아프리카 총인문학에 대한 세

아합경 이야기

부처님의 성도(3)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허가 멸하고, 유허가 멸하면 죽이 멸하고,

고, 죽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가 멸한다.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은 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명을 없앤다면 모든 괴로움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에 의하여 눈을 끊고 지가 생겼고 해가 생겨 깨달음을 얻고 광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을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까? 심이연기의 앞과 끝만 보면 무명에 의해 생노병사 등의 괴로움이 생기니 무명을 제거하면 생노병사의 괴로움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단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스스로 깨달음에 겨워 이런 계송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고요히 사유하는 성자에게 진리는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의혹은 사라져 버렸다. 연기의 도리를 알았으므로.”

이 짧은 계송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생노병사의 괴로움의 근원을 밝히기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던 사문 고타마 싯 다르타에게 드디어 진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는 곧 연기의 법칙으로서 그것에 의해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문 고타마 싯 다르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거듭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밤이 깊어졌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심이연기의 공식을 발생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순서대로 사유하셨다고 합니다. 즉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으며 하는 식으로 끝에 가서는 생이 있고 이로 인해서 노사와 온갖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사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심이연기의 순관 혹은 유전 연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며 하는 식으로 생이 멸하면 노사와 온갖 괴로움이 멸한다는 것을 사유하셨습니다. 이것을 심이연기의 역관 혹은 환멸연기라고 합니다. 심이연기의 이러한 순관과 역관을 부처님께서는 새벽녘에 다시 한번 더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고의 발생원

인과 그것을 소멸하는 이치를 완전히 파악하시고 깊은 힘에 겨워서 이렇게 계송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요히 사유하는 성자에게 진리는 드러났다. 태양이 허공에서 내리비추듯 악마의 군대를 미침내쳐부수었다.”

더할 나위 없는 위없는 비른 자혜에 의해서 누구도 깨닫지 못한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니 뜻입니다. 이 순간에 생노병사의 온갖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윤화의 꿈을 벗어나 해탈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자리에서 또 상당 기간 깨달은 내용을 음미하면서 앉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경전에서는 그 이후에도 그 근처에서 이리 저리 움직여 앉아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좌선하며 사유하신 기간은 경전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것은 3주, 길게는 7주간 까지 앉아 계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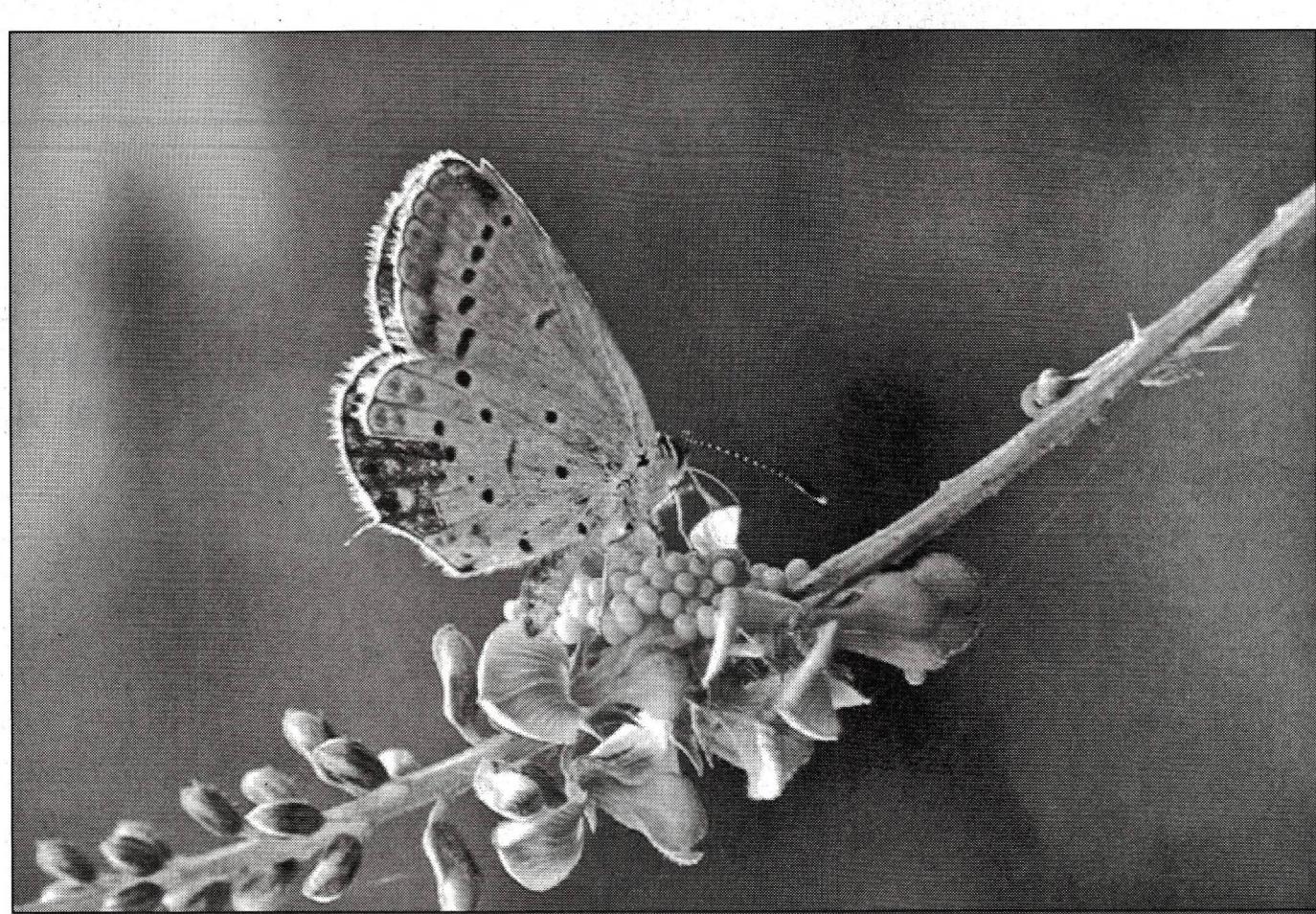
아무튼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반복하며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7일을 더 보낸 부처님께서는 삼매에서 깨어나 일종의 무화과나무인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가셔서 다시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는 염소 폐들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잎이 많고 그늘이 드리워진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마하박가》라는 율장에 보면 이 때에 처음으로 한 교만한 바라문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바라문이 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 때의 바라문이라는 것은 참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계급으로서의 바라문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를 나타내는 뜻으로 바라문이라고 부른 예는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아마 그 바라문 계급의 사람은 자기가 바라문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바라문이 될지나 아닌지 하는 투로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으며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청정하며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로서의 바라문은 이해야 된다고 짧잖게 타이르셨던 모양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만 묘사해 놓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아마 부처님께서 삼매에 잠겨 계실 때 어떤 교만한 바라문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싶어 툭 던진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다른 사람과 얘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간단한 이 말씀 속에는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자는 첫째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만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총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총의 역사를 만듭니다.

아제아제바라아제

죽음의 준비

불과 2주 전에 연로하신 아버님을 놀았습니다. 연세가 89세 이신데도 줄곧 진지를 몸소 챙겨 드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누우시고 약 삼칠일 만에 입종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을 간병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한 달여 동안 불자로서 저의 삶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무학이시고 자식들 이름 석자이외에는 국문을 쓸 줄 모르시는 분이었고, 다른 동시대의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근면한 농부로 사신 분입니다. 아버님은 전통적 유교관념을 가지고 계셨고, 전자문 정도를 배우셨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작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하는 명심보감이나 강태공이 지었다는 '집안에는 여섯 가지 도둑이 있는데...'라는 글을 가끔 읽곤 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유교관념이 그러하듯이 그 분에게 생사의 문제는 '조상과 자손'의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아버님 산소를 헌물처럼 가꾸셨고, 아들을 두기 위하여 위로 여섯의

<보리도차재론>을 번역한 것인데, 하사도·중사도·상사도의 세 단계로 나뉘어져 단계별로 세세하게 수행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중 하사도차제(수행을 시작한 초심자를 위한 수행체계)의 처음에 '죽음을 생각하는 수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오늘처럼 절실히 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은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손실, 죽음을 기억해도 수행하지 않아서 오는 손실, 죽음과 삶이 항상하지 않을 때 기억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오는 손실,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오는 손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일을 하는 하는 손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손실 등을 세밀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실체를 생각하는 것'을 죽음의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사유하는 것과 죽을 때 수행 외에는 아무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진실되고 근면한 삶을 살자

불자들을 위한 장례의 상호부조 절실

팔들을 두어 길러야 하는 '뼈골 빠지는' 삶도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을 간병하고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님께서 이런 유교관념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 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종종이 유명무실화되고 학가족화 됨과 동시에 조상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감성과 세태의 변화를 불초한 자식들과 종종의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아버님을 지켜보면서 불교인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파연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과연 한국의 불자들에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비하는 세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큰일을 모두 마치고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 부산 광성사에서 주석하고 있는 티베트인인 초필스님이 번역한 <립립>이라는 책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생각, 죽음의 상태를 관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에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수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설명을 달지 않아도 제목으로만 보아도 너무도 분명한 가르침이며, 불자들이 절실히 명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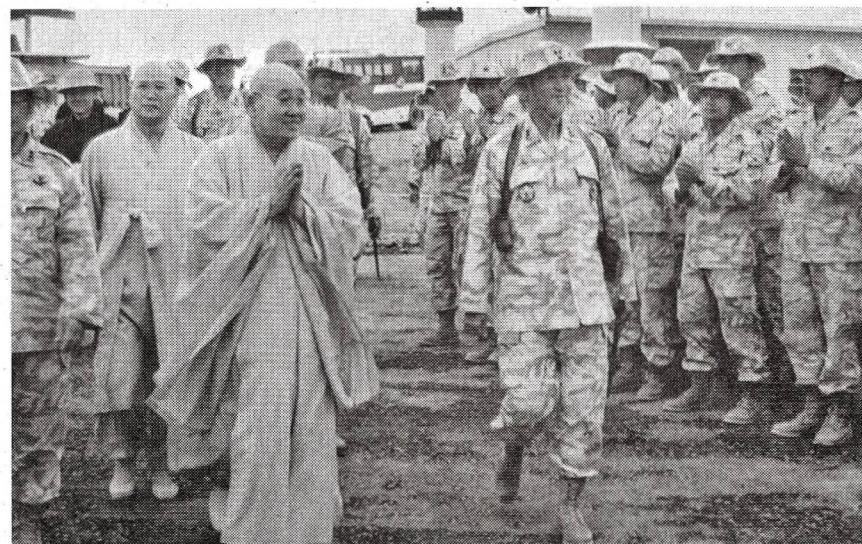
이러한 명상을 통해 불자들은 각자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삶을 진실되고 근면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해야 한다고 저 스스로도 다짐하게 됩니다.

더불어 살아갈 사람을 위해서는 간

교계소식

법장 스님, 자이툰 부대에서 '평화의 연등' 밝혀

이라크파병 장병의 무사안녕 기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비롯한 위로 방문단은 5월 12일 오후 12시(현지 시간 오전 11시)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를 방문, 군인들의 무사안녕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연등을 내걸고 병사들을 위문했다.

법장 스님은 아르빌 하늘과 공항에 도착한 뒤 자이툰부대장인 황의돈 소장의

'길만 불교 속은 반불교'

SGI 대책마련 시급

한국SGI를 '최상승법을 실천하는 불교'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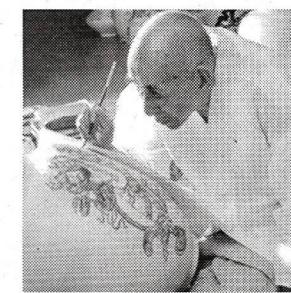
나무묘법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인 '남묘호한계교' 만이 불법의 진수요 심장이며 모든 중생을 성불케 하는 근원종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일본 일련정종인 한국SGI(국제창가학회)는 국내에 130만이 넘는 신도와 전국에 세워진 300여개의 문화회관, 전국을 35개 방면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11개 권으로 세분화하고 특히 광선유포(불교의 포교 개념, 이하 광포)의 핵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대학생 신도 역시 각 대학마다 수십 명에 이르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지난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한 '2005 나라사랑 대축제' 이후 한국 불교계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1975년 한국에 들어온 한국SGI는 곁으로는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속은 반불교적인 교의와 반민족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SGI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SGI를 '최상승법을 실천하는 불교'로 인식하는 왜곡된 불교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장 스님은 귀국하기 위해 아르빌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 종교시설 코리아센터 등이 들어선 자이툰 주둔지를 견학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현지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병원에서는 5월 2일 아르빌에서 일어난 폭탄테러로 몸에 있는 모든 파편을 제거하고 있는 야호야 (6세, yhea)를 위문했다. 야호야 어머니는 법장 스님에게 "한국사람들이 너무 좋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까지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태고종전승관 건립기금모금 만봉스님 전시회

6월 1일~14일, 관훈동 백상빌딩 내 모란갤러리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공한 이후 전승관 건립 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태고종이 전승관 불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건립성금 모금을 위한 만봉 스님 특별 전시회를 연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5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승관 건립은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중흥의 의미를 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불사"라며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만봉 스님의 작품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시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백상빌딩 내 모란갤러리에서 열리는 '만봉 스님 불화·민화 작품전'에는 상단탱화, 감로탱화, 영산회상도, 국락도, 팔상도, 관음도, 나한도, 달마도 등의 불화

와 십이신상, 신선도 등의 민화, 나한도 달마도 관음도 등으로 제작한 미니병풍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얼마 전 입적한 조계종 원로였던 석주 스님이 글을 쓰고 만봉 스님이 그림을 그린 수십여 점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전승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전승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맡아 건립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48호)은 "한국불교 전체의 중흥을 위해서도 전승관 불사는 성공리에 희망돼야 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은 500여명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간전 1600평 규모로, 불교문화예술 상설공연장과 불교문화재 및 예술품 전시관, 전통예술 및 인성교육관 등을 갖춘 불교종합문화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종단의 관계도 인연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시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 종립학교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쁘며, 교직원간에 화합하기를 바라며, 부처님 오신 날 김수환 추기경이 봉축행사에 참여하여 종교간의 화합을 보여주었듯이 비록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야 하며, 부산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이 세상에 화합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직원 서로간에 화합할 것을 한번 더 강조한다"고 당부하였다.

박수현 교장은 "교직원간의 불편했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어가고 있으며 오는 여름방학 때는 교직원 단합을 위한 직원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교 교육을 위해 점심 시간 등을 이용하여 법문 네일을 틀어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총지종 효강 종령 종립 동해중학교 방문, 격려

화합과 단결로 종립학교로서 위상강화 당부



총지종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우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법포승 통리원장, 선도원 총무부장은 지난 5월 19일 종립 동해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화합과 단결로

효강 종령예하는 "모든 일은 인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선생님들과 우리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대 상 : 일반시민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 11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저녁 7시, 월, 수, 금 저녁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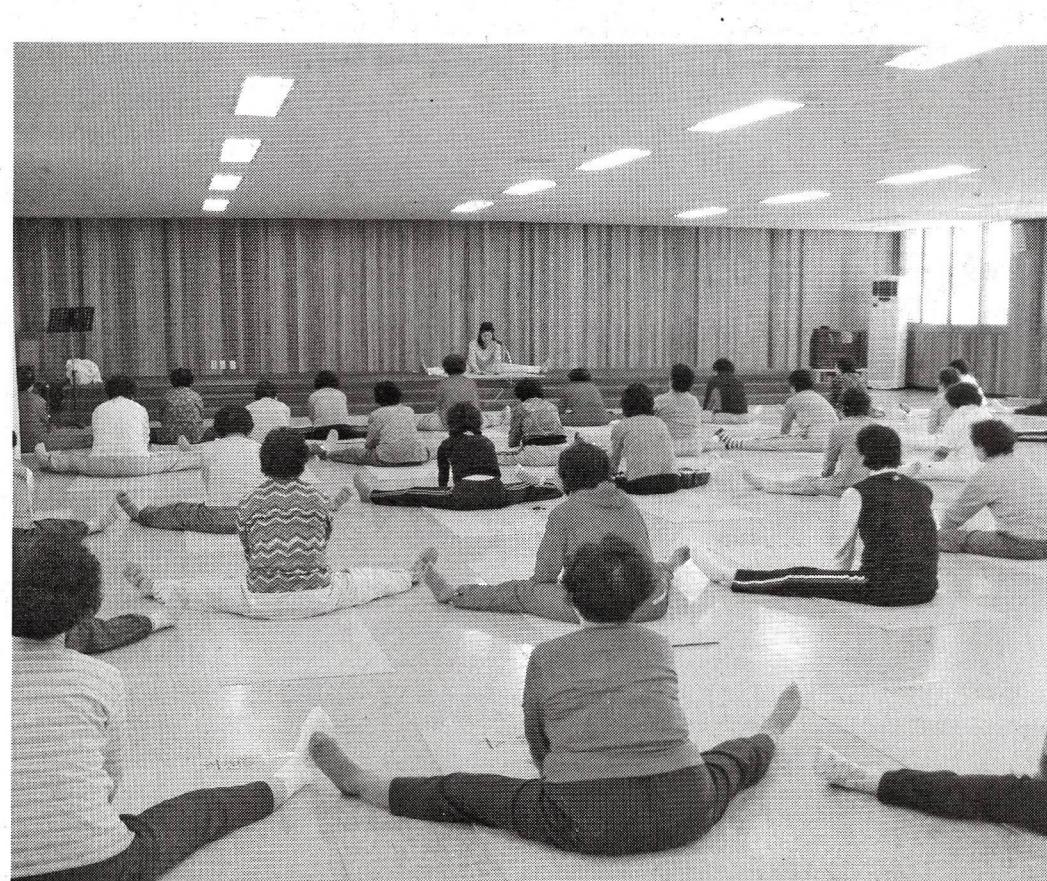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30,000원, 월 \20,000원

정각사 - 월 \10,000원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동해중의 모교사랑

종립 동해중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총지총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는 지난 5월 22일 본교 운동장에서 의강 동해중학교 이사장, 박수현 동해중학교장, 김수호 총동창회장(1회), 정관호 동래구의원(1회), 동해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동래구청장(4회), 이갑룡 울산동구청장(4회), 백종현 부산광역시의원(7회), 문춘원 변호사(14회), 송한식 동아대 교수(3회), 노봉호 동명정보대 교수(12회) 등 동문 100여 명과 가족들, 본교 교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고 모교사랑을 확인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몸풀이 체조, 축구 시합, 자녀 달리기 및 동문 부인 달리기, 기수별 씨름 대회, 기수별 단체 출렁기 대회, 족구 시합, 이어달

리기, 치어리더 공연, 장기자랑 및 노래경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

행되어 오랜만에 동해중 동문인으로서 긍지를 되새기고, 동문간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였다.

의강 동해중학교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번 모교는 평생동안 모교로써 여러 동문 선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동해중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때 동해중학교의 발전은 가능하며, 앞으로 동문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모교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호 총동창회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같은 동문인으로서 동일체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동문과 동해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지총 정각사 공부방개원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

총지총 부산 정각사(주교 법성)는 6월

1일 정각사에서 부산경남교구장, 정각사 주교, 동래구청장, 명륜동 동장 등이 동

참한 가운데 공부방개원식을 가졌다.

된 공부방을 활용하고 있으며, 차후 지역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각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요가, 한글, 한문, 서예, 밀교교리 등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정각사 교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문화를 통한 불법포교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14명의 학생들이 정각사에 마련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다니는 사찰의 교세에 대한 열악함을 느끼게 되어 불심을 약하게 만들고 소속사찰이 지방에 있거나 불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소속사원이 없어 어느 사원에 소속되어 연등행진을 해야 될지 혼란만 가중되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

물론 연등축제가 봉축위원회의 노력과 정진으로 시민의 문화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일반시민들이 소외된 문화축제는 그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연등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는 사찰별 교세를 자랑하는 경연장이 아니라 불자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요,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 즉 하루의 행사를 위해 소비하는 수십억의 돈을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고 부처님의 참 진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포교사업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또한 ‘나’와 ‘너’라는 차별이 없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동체대비의 정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김필선/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일반시민과 함께한 연등축제가 되었으면

나도 한마디

지난 5월 8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서울시의 모든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화려한 장엄등과 연등을 앞세우며 서울의 중심가인 종로거리에 행진하였다. 그러나 올 연등축제는 작년과 비교하여 운동장 좌석에는 빈 공간이 많았고 소속사찰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우왕좌왕하였으며 마치 외톨이 신세처럼 초라하게 빈 공간을 차지해 애만 했다.

연등축제는 이제

몇 년을 이어오면서

명실상부한 서울시의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불자 및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시민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찰별로 마치 교세의 위력을 자랑하는 경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돈이 많은 사찰은 수십 억씩 들어가며 웅장하고 화려한 장엄등을 앞세우며 기세등등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돈이 없는 사찰은 초라한 비닐연등을 들고 행진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연등축제가 불자로서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다니는 사찰의 교세에 대한 열악함을 느끼게 되어 불심을 약하게 만들고 소속사찰이 지방에 있거나 불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소속사원이 없어 어느 사원에 소속되어 연등행진을 해야 될지 혼란만 가중되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

물론 연등축제가 봉축위원회의 노력과 정진으로 시민의 문화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일반시민들이 소외된 문화축제는 그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연등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찰별 교세를 자랑하는 경연장이 아니라 불자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요,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 즉 하루의 행사를 위해 소비하는 수십억의 돈을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고 부처님의 참 진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포교사업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또한 ‘나’와 ‘너’라는 차별이 없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동체대비의 정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김필선/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밀교 강좌

밀교의 만다라

‘만다라(mandala)’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만다라(曼荼羅)’ 혹은 ‘만다라(曼陀羅)’ 등으로 쓴다. 이 말은 본래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만다(manda)’와 ‘라(la)’로 된 합성어이다.

‘만다라’는 ‘중심’ 또는 ‘본질’의 뜻이외에도 ‘신성한 것’, ‘최고의 것’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또한 ‘라(la)’는 ‘가지고 있는 것’, ‘장소’ 등의 뜻으로 이 둘이 결합되어 만다라는 ‘본질적인 것을 가진 것’, ‘최고의 것을 가진 것’ 등의 뜻이 된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말이 베다의 찬가 자체를 뜻하기도 했으며, ‘군대’, ‘동료’ 등의 뜻으로 쓰였고, ‘신의 세계’, 혹은 ‘단(壇)’을 가리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이 불교에 받아들여지면서 ‘원륜(圓輪)’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밀교에서는 ‘원만구족(圓滿具足)’이라고 번역하고, 또는 ‘정각을 성취한 경지’라고도 한다. 『대일경』[구연품]에서는 ‘본질을 가진 것’, ‘깨달음을 가진 것’ 혹은 ‘깨달음을 가진 장소’, ‘거룩한 장소’, ‘정각을 성취한 경지’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 뒤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선무의심장은 『대일경』 4권에서 이 말을 해석하여 만다라란 집합이라고 하니, 여래의 진실 공덕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세계의 미진수의 차별을 가진 지인(智印)이나 윤원(輪圓)이 모여서 대일의 심왕을 드고,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보문에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만다라라고 한다.“고 했다.

결국 밀교의 만다라는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경지로서, 그의 무량한 복덕이 모여 있어서 일체중생을 제도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관함으로써 부처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만다라라고 한다.

이러한 만다라는 비로자나부처님 즉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수많은 부처와 보살, 또는 명왕, 현신 등이 모두 집합된 한 장소가 상징적 그림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종교적으로나 미술적으로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세계로서 나타나게 된다.

밀교의 모든 것이 만다라로서 상징화된 것은 밀교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한 마디로 그 뜻을 표현하기 어렵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만다라는 용어

우주와 인간, 절대와 상대라는 이 현실 세계의 뒤에 있는 깊은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되고, 그것을 추상화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무의식이 창조능력을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이것을 다양한 도형으로서 구체화하기도 하나, 밀교의 만다라는 전통적으로 존상의 집합체로서 성불의 방편을 보여주고 있다.

만다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인 지혜와 중생제도의 자비를 하나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형상이나 기타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세계에서 보면 그러한 세계를 상징한 어떤 것에 대해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만날 수 있다. 만다라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훌륭한 방편이며, 세속적인 입장에서 성스러운 세계, 곧 부처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므로 수많은 만다라가 있게 되고 또한 여러 각도에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저 부처님

인간의 마음이 깊이 감춰진 보리심에 의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되는 대비만행의 모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곧 대일여래의 이 법신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대비심을 태장에 비유한 것이니, 우리의 생명 그대로 종교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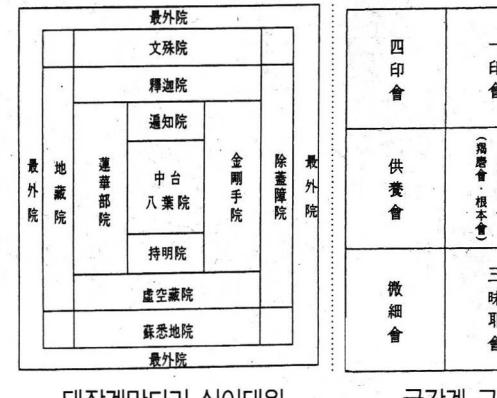
태장계의 태장이라는 말에는 함장(含藏)과 섭지(攝持)의 두 뜻이 있어, 마치 모태가 아기를 보호하고 기르는 것과 같이, 일체중생에게는 본래부터 여래의 평등한 자비의 본성을 함장하고, 또한 섭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해서 태장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장계만다라는 밀교의 근본 경전인 『대일경』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대비심을 그림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대일경』은 7세기 전반에 서남印度에서 성립된 것이다. 중대팔업원, 변지원, 지명원, 금강수원, 관음원, 석가원, 문수원, 제개장원, 지장원, 허공장원, 소설지원, 최의원 등 십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414존성이 모셔져 있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金剛)이란 깨달음의 지혜의 몸이니, 금강석과 같이 견고한 것을 본체로 한다는 뜻이다. 금강계만다라는 종(從)과 횡(橫)의 3종의 태두리로 구획된 아홉 개의 공간이 있다. 중앙에 있는 것은 성신회라고 하여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4불이 행을 이루어 37존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대일여래를 제외한 제존은 금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밀교 특유의 보살이다. 곧 태장계만다라에서 나타나는 제존이 모두 밀교의 성격을 띠고 독자적인 존격으로 변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계만다라는 태장계만다라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경』을 소의경 전으로 하여 묘사된 것으로서 고래로 구회(九會)만다라라고도 불러진다. 이것은 아홉으로 등분된 복합 만다라이며, 제존이 만다라 위에서 회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구회란 갈마회, 삼마야회, 미세회, 공양회,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항삼세갈마회, 항상세삼마야회 등이다. 금강계만다라에는 1,461존이 모셔져 있고 무수한 불보살과 제존들이 나오는데 중앙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대일여래의 별덕을 상징하고 있다. 행자는 이 만다라를 통하여 그 제존들이 덕성을 체험하여 마침내 대일여래와의 일체를 이루게 된다.

〈자료출처 : 밀교사상사개론〉



금강계 구회만다라

의 깨달음의 세계인 진실세계, 곧 법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법과 하나가 되려고 하여 그것을 형상으로 나타내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우주의 신비한 세계와 인간 생명의 심오한 세계를 추상적인 도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는 신비한 부처님의 본체나 모습이나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진 종자로써 나타내기 한다.

총지총에 모셔져 있는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모두 부처님의 세계 곧 법계의 표현이라고 보고, 이 법계가 그대로 여래의 장엄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밀교에 있어서는 일체의 사물은 여래의 지혜와 자비의 표시이니, 사사물물(事事物物)이 그대로 장엄한 불신이다. 따라서 대일여래의 지혜를 상징하여, 이 우주의 근본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에게 그려한 부처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쉽게 나타낸 것이다.

태장계만다라는 대비태장생만다라

고 하는 것으로, 대비의 종자를 간직한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YON HUNG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인정 받는 기업
봉사를 아는 기업

경영이념(經營理念)

상호 존중 기술 혁신 고객 만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 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축제

'나'와 '너'가 하나되는 부처님 세상



부산지역 총지종 교도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화려한 궁중복과 아름답게 단장한 총지종 연희단에 매혹당한 불자들



하늘 높이 두팔벌려 환호하는 군중과 함께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과 각종단 대표들의 봉축발원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 불교 총지종!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오타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증상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아름다운 연꽃으로 단장한 밀짚모자



총지종 스승님들이 중대팔염원을 형상화한 연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준제결인을 형상화한 장엄등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흥겨운 한미당에 춤이 멍실멍실



서울 경인 지역 연희단의 흥겨운 춤에 맞춰 교도들이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풍물페가 연등축제에서 공연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 동대문 야구장과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총지종의 연희단과 교도들이 장엄하고 화려하게 제작한 준제결인의 장엄등과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염원을 형상화한 팔연원등을 들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였다.